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

무주군 일원서 적상산사고에 실록 봉안했던 모습 사실감 있게 묘사·사자춤 공연 등 진행

1634년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의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행사가 무주군 일원에서 펼쳐져 주목을 받았다.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봉안사 행렬은 북전주세무서 무주민원실을 시작으로 등나무운동장 사거리까지 행렬을 하며, 무주 협감 행렬은 무주군청을 출발해서 U대회 기념교를 거쳐 등나무운동장 사거리에서 봉안사를 맞고 다시 무주군청으로 행렬해 무주관아 보관식 행사를 마쳤다.

이후 무주군청~터미널사거리~최북미술관을 경유하는 적상산사고 봉안행렬을 하고 한중루에 도착해 적상산사고 봉안식 순으로 봉안행렬 재현 행사가 마무리됐다. 올해 행사는 봉안행렬 행사뿐만 아니라 군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줄타기와 사자춤 공연 등의 무대도 함께 마련되면서 볼거리도 제곱했다.

이번 봉안행렬 재현 행사는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 적상산사고 봉안에 따른 고증을 토대로 한 재현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적·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역사적 의미가 크다.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및 봉안식 재현행사는 적상산사고에 실록을 봉안했던 모습을 재현한 것으로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 재현과 무주 관아에 보관하는 보관식, 사고에 실록을 안치하는 봉안식 등이 사실감 있게 재현됐다.

1634년 12월, 묘향산사고에 있던 13대(태조~명종)실록과 일반서적들이 적상산사고로 봉안됐다. 실록의 이동은 엄숙한 국가 의례였다. 한양에서 이송된 실록이 무주관아에 도착하면 대규모의 환영식이 펼쳐졌다.



1634년 조선왕조실록 묘향산 사고본의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재현행사가 무주군 일원에서 펼쳐졌다.

관아에 임시로 보관했다가 관상감에서 정해준 날짜와 시각에 사고지로 이동했다. 관아에서 사고로 이동할 때도 의장대가 갖춰져 풍악을 울리며 행진했다.

맹각상 무주문화원장은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지난해 최종 용역을 통해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 봉안행렬 행사를 철저한 고증에 따라 향정자(향로를 실은 가마), 채여(실록 캐를 실은 가마) 등과 165명의 출연진, 말 7마리 등장한 가운데 최대한 현실감 있고 사실감 있

게 재현하기로 확정된 바 있다"며 "지난 2019년 처음 진행된 재현 행사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진행되지 못했으며, 올해 다시 행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군과 무주문화원은 앞으로 조선왕조실록 봉안행렬을 무주만의 특화된 전통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왕실문화의 역사를 품은 무주군의 자긍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서은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 '대상'

고창 동리국악당서 열린 전국어린이 대회서 수상

어린이 판소리 부문 최고의 등용문인 '제34회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에서 전서은(공주 신관초 4년) 어린이가 '적벽가' 중 조조 듣고 화를 내며 대목'을 열창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고창군은 지난 14~15일 동리국악당에서 '제34회 전국어린이 판소리 왕중왕 대회'를 열었다. 고창군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하고, (사)동리문화사업회가 주관한 대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대한민국 차세대 소리꾼의 등장을 알리는 대회로 명성을 얻고 있다.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어린이들이 모여 왕중왕을 가리는 대회에는 지난 14일 전국의 26명의 꿈나무 소리꾼들이 고창 동리국악당에서 예선을 거쳐 7명이 본선에 올랐다.

대상을 받은 전서은 어린이는 우리 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소리꾼이 되겠다는 당찬 꿈을 가진 소녀로 잠잠인 상정을 살려 경연을 치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경연에 임해 왕중왕에 올랐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동리 신재효선생을 비롯해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



등 수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예술의 성지다"며 "앞으로도 꿈나무 소리꾼들의 육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군민 위한 '가을 클래식' 공연 열린다

순창군이 오는 18일 저녁 7시 향토회관에서 순창군민들을 위한 가을 클래식 공연을 진행한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며 관람객은 마스크 미착용시 입장이 불가하다. 군은 전체 465석인 공연장 내 관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230석만 사용할 예정으로 관람객 입장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순창군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성악가 4인과 튜브악, 전자현악 팀의 리더인 전자비바이올리니스트 유세미가 드림필 하모니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춘다.

공연 프로그램으로는 드림필하모니오케스트라의 베토벤, 바하, 브람스의 곡들을 편곡하여 만든 'The Three B's'를 시작으로 김연아 아이스쇼에서 메인테마로 쓰였던 'Jupiter - Bringer of Jollity', '금과 은 왈츠', 가을 노래 메들리

"가을의 노래", "African Symphony" 등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이어진다. 또한 테너 손영호의 "고향의 노래", 소프라노 고은영의 "아베마리아", 비리톤 김동식의 "투우사의 노래", 테너 박진철의 "지금 이 순간", 4명의 성악가가 함께 부르는 "향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오 솔레미오"를 노래하며 관객들의 심금을 울릴 예정이다. 뒤이어 전자비바이올리니스트 유세미의 감미로운 "Nella Fantasia"와 경쾌하며 힘찬 "The Storm"의 공연 프로그램들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45인조의 오케스트라와 출연하는 협연자들의 환상적인 호흡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다는 클래식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공연 영상은 순창군 유튜브 채널인 '순창튜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관람 가능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홍찬석 전북대 교수, 48번째 개인전 개최

12월 14일까지 전북대박물관서

전북대학교 홍찬석 교수(산업디자인학과·박물관장)가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북대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48번째 개인전을 갖는다고 전했다. 오프닝은 24일 오후 5시다.

이번 전시는 30여 년을 몸담았던 대학에서 교수로서는 마지막 전시다. 전북대 예술대 산

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개인전과 단체전 등 300여 회의 전시를 해 온 그에게 장년기 넘진인 셈이다.

지난 전시에서 사랑과 평화, 행복, 치유 등의 메시지를 담아 밝고 긍정적인 작업을 해 온 홍 교수는 이번 전시에서 마이산 시리즈와 'Feeling Love'라는 타이틀로 여러 신작을 선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해 황량해지고 피폐해진

이들의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작가의 마음이 작품에 담겼다.

홍찬석 교수는 "따뜻한 공간에서 따뜻한 사람들과 30여 년의 교수생활을 잘 마칠 수 있어 행복했고,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전북대박물관을 찾아 그림 감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은성 기자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담은 색칠그림책 발간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오는 18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새만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만금 지역의 모습을 담은 컬러링북(색칠그림책)을 발간한다.

컬러링북은 '새만금-내 손으로 칠하는 새 문명'을 주제로 새만금을 상징하는 방조제와 준

공담을 비롯해 신항만, 만경대교 등 사업 현장과 대표 관광지인 선유도 등 총 10곳의 그림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도안마다 간략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어 채색하는 즐거움과 함께,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구성돼 있다.

새만금 컬러링북은 디지털 방식(E-book)과

인쇄물 형태로 배포된다.

도안은 새만금개발청 블로그(blog.naver.com/smgstory)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새만금청 유튜브(youtube.com/c/kasdi0912)에서는 채색 예시 영상을 볼 수 있다. 인쇄본은 '2021 트레블쇼' 현장 배포를 시작으로, 새만금 관련 행사에 지속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새만금개발청에 요청하면, 우편을 통해 제공한다. /유호성 기자

군산대 산업디자인학과 제33회 졸업 작품전시

국립군산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가 17~21일까지 군산 예술의전당 전시실에서 33번째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 기초에서 심화에 이르기까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디자인 교육을 시

행하고 있다.

2021년 제53회 전라북도 미술대전 대상, 제10회 한영텍스타일디자인 공모전 우수상, 제32회 대한민국텍스타일디자인대전 및 제25회 부산 텍스타일디자인대전에서 브랜드상을 수상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제5회 전라북도 아리울 아버지 합창대회!

소통하고 찾아가며

변화를 선도하는 군산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